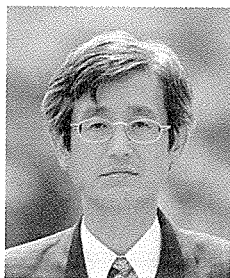


# 숲을 다시 우리 품으로

산의 한쪽면 전체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시뻘겁게 깔리고  
은행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러왔던 그 자리에는  
연립주택이 들어서  
나무들이 내뿜는 향기대신  
시멘트 냄새만 진동한다.  
우리도 서양적 개발주의에 휩쓸려  
나무와 숲에 대한 경건성을  
상실해 버렸다.  
숲을 인간의 분향으로 여겼던  
동양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崔元植  
(인하대 문과대 국문과 교수)

**인**도네시아 열대림에 불이 붙어 인근 여러 국가까지 연무(煙霧)로 고생하더니, 지구 산소의 1/4을 공급하는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 아마존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다. 다행히 이제는 꺼진 모양이지만, 이 재앙이 천재(天災)라기보다는 인재(人災)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정부는 열대림 개발정책의 일환으로 농민들이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없이 열대림으로 들어온 농민들은 전통적인 화전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정책이 폐기 또는 수정되지 않는 한, 대규모 산불 발생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이 지역 농민들의 화전방식을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다. 이는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화급한 경제문제로 열대림 개발정책을 밀고 나가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정부를 마냥 질책만 할 수도 없다. 열대림 개발은 이들 정부보다 선진자본이 더 일찍이 그리고 더욱 대규모로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사실 최근 빈발하는 인도네시아 산불만해도 탐욕스런 기업들이 야자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의로 숲에 불을 지른 데에도 크게 원인이 있는 것이다(중앙일보, 1998. 4. 17).

하여튼 그 지속적인 파괴의 누적 결과, “금세기 초엽만 해도 지구 전체 지표면의 16%를 차지하던 열대림은 현재 약 6~7% 면적밖에 남아있지 않다. 오늘도 1분에 축구경기장 10~20개에 해당하는 열대림이 소실되고 있으며, 그 결과 매년 1천만~1천5백만ha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전영우, 「열대우림의 위기」, 「함께 사는 길」, 1988. 4). 요컨대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지상의 모든 오지(奧地)를 남김없이 자신의 봉토로 식민화하는 전지구적 자본의 무서운 운동이 열대림 파괴의 주범인 것이다.

## ‘스키장건설 때문에’ 탄식

1996년 6월 초, 나는 강릉대 대학원 국문과 초청으로 특강을 위해 강원도 길을 밟은 적이 있다. 동해안의 악명높은 안개로 비행기가 뜨지 못하는 바람에 고속버스로 달리다 보니, 강원도 산천을 유심히 살펴볼 기회를 얻었다.

온통 푸르름에 물든 푸른 들, 푸른 숲, 푸른 산을 실컷 보고 있자니 문자에 간혀있던 내 안경 속의 눈은 정말이지 오랜만에 시원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산의 한쪽 면 전체가 꼭대기부터 아래까지 시뻘겁게 드러난 곳이 더러 눈에 띄는 것이 아닌가? 저게 무얼까, 궁리하다가 나는 아, 바로 스키장이로구나 하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겨울에는 인공눈인지 자연눈인지 덮여서 잘 모르겠더니 눈 없는 계절에 보니 세상에 그런 흉물이 없었

다. 눈이 줄곧 쌓여있지도 않는 나라에서 무더기 스키장 허가를 내준 정부, 장사가 된다면 산과 숲을 파괴하며 막무가내로 스키장을 만드는 기업도 문제지만, 언제부터 스키없이 못 살았던 사람들처럼 스키장으로 몰려드는 우리 국민도 문제가 없지 않다. 말썽 많은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한철 놀기 위해서 조상이 물려준 우리 국토, 아니 후손에게 빌려온 이 산천을 마구잡이로 훼손하는 한국의 정부, 기업, 국민은 먹고 살기 위해 열대림을 개간하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보다 더욱 한심하다. 이러고서야 무슨 낚으로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정부를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 동네는 숲이라고까진 할 수 없어도 나무들이 제법 울창해서 계절이 아름다운 곳이었다. 꽃들이 다투어 피고, 새 잎이 나 푸르러지고, 단풍이 들고, 햇빛은 나무들 사이로 오래 묵은 상록수가 청청해,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에 잠을 깨곤 하니, 도심치고는 꽤 근사한 동네라 하겠다. 그런데 올 봄은 영 몰풍경이다.

동네 어귀에 있던 절이 나가 큰 은행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드리웠던 그 자리에 연립주택이 들어서더니, 교회가 대규모 신축공사를 시작해 나무들이 내뿜는 향기 대신 시멘트 냄새만 진동한다. 왜 우리나라 교회는 거대지향인가? 종교건축의 개성도 없이 콘크리트를 때려넣은 거대한 토치카같은 모습을 보노라면, 교회도 세속과 다를 것이 없다.

인간의 영성을 보듬어 열기는 커녕 교회가 앞장서서 세속의 물질적

개발주의를 부추기는 꼴이니 한심한 일이다. 나무와 숲의 수난은 머나먼 열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먼 강원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시시각각 진행중이다.

### 일부러 나무심어 경관망쳐

나는 작년 겨울 제주 민예총의 초청으로 제주도 강연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행사 뒤 제주 이곳 저곳을 구경다녔는데, 가장 인상적인 곳이 삼성혈(三姓穴)이었다. 하느님의 아들이 천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육지의 부계(父系) 신앙과 달리, 대지의 구멍 즉 여근(女根)에서 건국 영웅들이 출현한 삼성혈은 모계제적 성격이 강한 신화체계를 암시한다.

제주 시내에 위치한 삼성혈을 찾은 날은 비가 내리서인지 관광객도 거의 없었다. 우산을 들고 경내를 돌면서 나는 삼성혈 유적보다는 이 유적을 동그렇게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숲에 반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 대지'의 품 속, 이 경건한 숲에서 깊은 평화를 맛보았다. 삼성혈의 감동으로 나는 제주 동쪽 구좌읍의 유명한 비자나무숲을 찾아갔다. 비자림(檜子林)으로 가는 길에 들 곳곳에 봉긋이 솟은 오름을 바라보니 마치 대지의 유방과 같다.

애초부터 나무가 없는 오름은 산이 아니다. 그런데 이 오름에 일부러 나무를 심어 경관을 망치고 있으니 딱한 일이다. 비자림은 역시 대단했다. 나이가 8백살이 넘는 비자나무를 모신 이 성스러운 숲 속을 순례하면서 나는 나무와 숲에 대한

경건한 존중심을 회복하는 것이 환경운동, 아니 새로운 생태운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숲에 대한 공격은 동양적이기보다 서양적이다. 인간의 원초적 문화의식이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마련인 민담을 비교해보면, 서양의 숲은 이교도와 야만인과 야수들이 들끓는 공포의 대상이다. 마술사와 마녀(그런데 그들이 근대과학자의 선조다)가 착한 주인공을 공격하는 음모를 꾸미는 음험한 곳이다.

이성에 의해 억압된 리비도가 지배하는 무의식의 음습한 서식지다. 그 때문에 서양인들은 숲을 정복하여 정원으로 만든다. 정원은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경계 즉 '길들인 숲'이다. 이에 반해 동양문화에서 숲은 인간의 본향(本鄉), 바로 자연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통 정원은 자연을 문명의 이름 아래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큰 자연 속에 너그럽이 수용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런데 근대 이후 서양적 개발주의에 휩쓸려 한국인은 나무와 숲에 대한 경건성을 상실해버렸다. 여기에 병통의 근원이 있다. 나무와 숲에 대한 동양적 감각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리하여 열대림을 머리로만 근심하는 척하기보다 우리 주변의 나무와 숲을 정성스럽게 섬세한 우정의 세계로 끌어들이자. 그때 비로소 악화일로 걷고 있는 한국의 환경파괴를 수습할 단서가 열릴 뿐만 아니라 자연의 혼돈스러운 생기에 기초한 새로운 문명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라지기도 모른다. ㉟